

지방자치·종합

통합진보당 '한 지붕 두 가족' 되나

혁신비대위 대 당원비대위 대치 심화
강기갑 "비례대표 사퇴안 이달중 처리"

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신당권과의 혁신비대위 출범에 맞서 별도의 비상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하면서 양측간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16일 신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차 혁신비대위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지만 구당권파는 이를 보이콧하고 당원비대위를 별도로 구성해 독자적인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이 각각 비대위를 구성해 활동할 경우 통합진보당은 '한지붕 두 가족' 상태로 운영되면서 차기 지도부 구성과 개원준비 등 사안별로 정면충돌하면서 최악의 경우 분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혁신비대위의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국민참여당 출신의 권태홍 선대위 전략기획위원과 부산연합 출신의 민병렬 부산시당 위원장을 임명했다.

내부인사로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출신의 이우호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이 포함됐고, 인천연합 출신의 이정미 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비대위 대변인을 맡게 됐다. 노동계를 포함한 외부인사의 경우 2차 인선 때 발표된다.

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혁신비대위의 막중한 요구와 시일의 급박성에 따라 오늘부터 즉각 당쇄신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겠다"며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비례대표 사퇴 결의의 건을 5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중 경쟁부문 비례대표들과의 면담을 추진해 사퇴요구와 해

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당내에 중앙위 폭력사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당내 규정에 따라 처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당권파 측은 혁신비대위 구성이 편파적이라면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뒤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비대위 구성에 착수했다.

구당권파는 나아가 신당권파에 대해 반격 흥보전에 적극 나섰다. 우선, 구당권파는 이를 전 대방동 당시 앞에서 분신 기도를 했다가 중화상을 입은 당원 박영재(44·수원비정규직 노동센터 소장)씨가 유시민·심상정 전 대표에게 보낸 호소문을 공개했다.

박씨는 분신 당일 새벽에 쓴 글에

서 "야권연대를 파기하고 무게 있는 위원장을 확정해 정식으로 헌트라진 당의 상황을 수습하고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당권파인 이성규 당선자는 "비대위 참여 제안이 왔고 참여를 검토했지만, 화합형 비대위가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강기갑 비대위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당권파는 나아가 신당권파에 대해 반격 흥보전에 적극 나섰다. 우선, 구당권파는 이를 전 대방동 당시 앞에서 분신 기도를 했다가 중화상을 입은 당원 박영재(44·수원비정규직 노동센터 소장)씨가 유시민·심상정 전 대표에게 보낸 호소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신당권파인 이지안 부대변인은 "박영재 당원 사건은 대단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심, 유 전 대표도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개숙인 강기갑 비대위원장

부정 피문과 지난 12일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로 통합진보당 지지를 철회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종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영훈 위원장에 머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비례대표 선거 위 희망연대를 파기하고 무게 있는 위원장을 확정해 정식으로 헌트라진 당의 상황을 수습하고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中, 북 인권운동가 김영환 기소 가능성

외교부 대변인 "법에 따라 처리"

중국이 한때 한국 대학과의 주체사상 교육 교묘히었던 '강철서신'의 작가인 김영환(48) 씨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유

관 부문이 법에 따라 조사, 처리 중"이라고 짚어 언급했다.

이는 한국의 새누리당을 포함해 각계에서 석방하라는 요구가 들끓자 나온 반응으로 해석된다.

김씨와 동료 3명은 지난 3월 29일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다가 중국 당국의 급습으로 체포돼 단동(丹東) 소재 국기안전청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80년대 대학을 훈련받은 NLC(민족민주) 계열 학생운동권의 핵심으로 주체사상 확산의 주역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개념에 전력을 쏟는 북한 인권운동가로 변신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반북 인사로 여길만한

다는 얘기다. 중국 당국의 김씨 구금, 조사가 길어지는 배경도 김씨의 그런 처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베이징 외교에서는 북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중국이 처리 해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 당국이 김씨 등에 한국의 국가보안법 격인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통보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우리가족의 건강은

휘나핫이 지킨다
반신욕 물없이 즐긴다.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 물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반신욕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사우나를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TV나 신문 등을 볼 수도 있어 최근 획기적인 사우나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모님, 부부는 물론 자녀 공부를 하면서 피로를 풀수 있도록 만들어져 온기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하고 하체는 따뜻하게'라는 한의학에서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 냉기가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휘나핫 반신욕기는 가장에서 쉽게 물없이(특허획득제10-096707호 발명의 명칭: 세리미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C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 미 일반상 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2020년까지). 시중에 유시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휘나핫을 확인하세요.

★ 휘나핫 반신욕 이렇게 하자

휘나핫 반신욕기는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 본인 편리한 시간에 1~2회정도 하는게 적당하다. 면역, 면티, 면양말 착용 후 휘름토종 침약을 증이법 한컵과 따뜻한 물 한컵복용한 후 반신욕을 시작한다(약30~40분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적당하게 온도설정 하세요). 반신욕은 한 후에는 바로 사워를 하지 않고 일정시간(30분~1시간) 체온은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 사워를 하지 않아도 땀냄새나 곤적기림이 없어 물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거나 반신욕 이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더욱 좋다.



5월 가정의 달!
생산가격으로 공급합니다.
4/28~5/28 일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경영 을 검색하세요

계약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강봉석·박충훈 공저
복지수출판사 | ISBN 978-89-530-0008-1

[전국 유명서점 판매점]
전국민 공부합시다!
www.successtv.co.kr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낭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애연, 기운을 복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070-7804-5358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신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볼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鲱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마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참숯 골드

마산 흑단발
제작: MIKE 지식경제부
Gangneung Technopark miraRhus

* 이 제품은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충북 터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옥천참숯 R&D 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가족 건강 생각하는 당신 마음을 담습니다.
- 평안도 맹산 포수들의 비법을 되살렸습니다.
- 옥션을 맹산 흑단발 진액, 그 원료가 더합니다.
- 게르마늄 광천수로 유명한 삼남리 186미터 원수 사용
- 이대제 옥나루를 다른 사람들 이 만들어 냅니다.



▶ 옷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186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흐름참숯을 만들었습니다.

▶ 옷에 대한 술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옥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숯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나무 생활을 흐름 참숯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5월

가정의 달!

1세트 9병

+ 추가증정 3병

4/28~5/28 일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이정현 의원 마지막까지 지역예산 확보

5월 어머니 집·국악전수관
리모델링 8억 지원 얻어내

18대 국회의원에서 '호남 예산 지킴이'로 맹활약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마지막까지 광주 현안 사업 예산을 확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서구를 지역구에 놓아, 새누리당 호남 최대 득표율을 기록하고 석패한 바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6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 '5월 어머니 집' 확장과 '빛고을 국악 전수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8억원)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두 가지 사업은 지난해 국고 예산 확정 과정에서 어렵게 제외됐었는데 이 의원이 행안부를 마지막까지 집중 설득,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 확보로 '5월 어머니

집'은 연간 평균 80여명의 문화 센터로 거듭나게 되면서 5월 어머니들의 넉넉한 쉼터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빛고을 국악 전수관은 전국 유일의 국악 공연장으로서 상설 국악 공연과 국악 강좌 등을 꾸준히 전개했지만 개관 10년이 넘어 음향장비 등이 노후화 되면서 국악 저변 확대의 기능이 약화됐다.

이번 예산 확보로 국악전수관은 음향 장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무대와 객석의 리모델링을 통해 수준 높은 국악 공연 등을 통해 광주의 문화 수준을 한 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지역민들의 성원이 아직도 가슴 한켠을 울리고 있다"며 "이번 예산 확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종식 서구청장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몫을 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리는 강 의원이 참석한다면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괴롭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그간 5·18 기념식 때마다 참석해왔던 만큼 이번 32주년 기념식에 꼭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5·18 구속부상자회 등 5월 관련 3개 단체는 지난해 3월 5·18 공주위를 만든 뒤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5·18 기념행사에 참석해왔다.

5·18 공주위는 특히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시민사회연석회의와 연대해 공청회를 통한 갈등 해소를 요청했지만, 강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먼저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가해자로 몰아붙였다"며 "5·18 공주위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말했다.